

태권도 “목표는 AG 금메달 최소 6개”

(자카르타·팔렘방)

진천 선수촌서 미디어데이

김종기 총감독 “이대훈 등 겨루기 선수 컨디션 좋아”
대회 3연패 도전 이대훈
“재미있는 경기 펼칠 것”

“금빛 발차기를 기대하세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게임에 출전하는 태권도 선수들은 대회를 코앞에 두고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8일 진천 선수촌에서 아시아게임 태권도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태권도 중추국으로서 대표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 6개의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이 아시아게임에서 2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효자 종목인 태권도의 선전이 절실하다.
김종기 총감독은 “2014년 인천에서는 12개 체급에서 6개의 금메달을 따. 이번에는 품새라는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면서 겨루기가 10체급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우리 선수들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금메달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금메달 목표를 6개로 잡고 있다. 선수와 코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겨루기 선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 이대훈, 김태훈 외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삼남시청의 이화준, 가스공사의 이승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남자 쪽에서는 5체급에 출전하는 데 4체급 정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8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 겨루기·품새 참가선수단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선수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여자부에서는 강보라, 하민아가 컨디션이 좋다. 아이름은 컨디션이 안 좋아 치료하고 주시도 맞고 있다. 아이름이 금메달을 따줘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60%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태권도의 간판 이대훈은 무엇보다 재미있는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이대훈은 “점수 차를 크게 벌린다고 해서 보는 분들이 ‘태권도, 아 재미있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루즈한 발차기보다는 임팩트 있고 스피드 있는 발차기를 보여주면서 치고 받는 경기를 해야 태권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봐도 박진감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할 것 같다. 경기에 임할 때 좀 더 스피드하고 치고 받는 경기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보라는 과거 택견을 배운 것이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택견 베이스로 태권도를 하게 되면, 택견은 넘어지면 지는 경기라서 중심을 잡는데 유리하다. 접근전에서도 상대 중심을 조금 이용해서 얼굴

페리는 기술들이 좋은 것 같다. 열심히 노력한만큼 멋진 경기, 후회없는 경기를 해서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 따 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품새 종목에 출전하는 권여원은 “기존 품새 시합은 공인 품새만 실시해서 선발했다. 단체전에서 각자 기량이 차이가 나서 평준화에 중점을 뒀다. 그런 기량 차이에서 차이를 줄이는 게 큰 목표였다. 각오는 실수 없이 끝까지 마무리 잘 하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시스



김제시청 태권도팀, 전국대회 5인조 단체전 우승

김제시청 태권도팀(단장 구명석)이 지난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충북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출전했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청주시, 청주시 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겨루기 선수 총 1,333명이 출전하여 각 부별로 자웅을 겨뤘다.
김제시청은 8명의 선수가 일반부에 출전 5인조 단체전에서 결승에 올라(박예슬, 안해인, 이수민, 조미희, 정해진, 박영지) 성주군청을 50 : 41 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는 4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 -62kg급 안해인 선수가 청주시청 신애리 선수와 3 : 3 점전 끝에 연장전 골든포인트로 이겨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49kg급 정해진, -53kg급 박영지, -73kg급 박예슬 선수는 아깝게 패해 각각 은메달에 머물러 금, 은3개로 개인종합 3위에 올랐다.
서인오 감독은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과 측면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볼트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내겐 꿈”

호주 A리그 샌트럴 코스트 매리너스 팀 훈련에 무기한 참여

‘번개’ 우사인 볼트(32·자메이카)가 프로축구 선수로 성공하겠다는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단거리 육상의 전설인 우사인 볼트가 호주 프로축구 A리그의 샌트럴 코스트 매리너스 팀 훈련에 무기한 참여하기로 했다
구단 측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은퇴를 선언한 볼트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는 독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시작으로



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멜로디 선다운즈 FC, 노르웨이 스트림스고세트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100m와 200m 세계기록 보유자로 올림픽에서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볼트는 샌트럴 코스트 매리너스와의 계약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트는 “호주에 온 것이 매우 흥분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볼트는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내게 꿈이었다”라며 “호주 A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방통위, 지상파 3사에 ‘아시아게임’ 순차편성 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게임’ 순차편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전날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 결과,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게임의 중계방송에서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개·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결승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방통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권고안을 아시아게임 중계방송권자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권고안을 통해 지상파 3사에 “국민들의 시청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아시아게임 중계방송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하는 카누, 조정 등 국제신호(IS) 미제작으로 중계방송 되지 않는 종목을 시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2·3차 참가자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지리적·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2018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청소년(2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만 60세 이상 어르신(2차, 200명)과 도서·벽지학교 청소년(3차, 200명)들이 참가하는 2018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2차·3차 참가자를 8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캠프는 태권도 기본자세와 힐링태권체조 등의 태권도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태권도 시범공연 및 국립태권도박물관 관람, 명랑운동회 등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태권도 수련과 숙식, 교통 등 캠프 참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2차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는 9월 17일부터 18일, 도서·벽지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3차 캠프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2·3차 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시설·기관 등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